

지역 매아리

김제시보건소, 설명절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 실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관내 식품제조업소(30개소) 및 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85개소)에 대한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위생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3개반(9명) 점검팀은 명절에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해 무표시, 유통기간 경과, 허위과대광고, 보존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두부류, 만두류 등의 가공품·식용유지류와 홍삼정 등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와 전통시장 앞에서 식중독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설명절 나기를 위해 판매 식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새해 경로당 현장 방문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희망찬 새해를 맞아 21일부터 현장에서 마을주민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신년맞이' 관내 36개소 경로당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년맞이' 경로당 현장 방문'은 앞으로 진행될 시정 추진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관한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31일까지 진행된다.

2019년 경로당에 새롭게 진행될 시정 추진사업인 경로당 정부양곡 확대지원(년12포/20kg) 및 경로당별 급식도우미, 환경도우미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밀착형 주민사업제도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조성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당 난방시설 가동유무 파악, 소화기 관리상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며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들을 파악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청년 셰어하우스를 7곳 21명 규모에서 8곳 31명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완주 청년JUMP-UP' 추진

군, 군단위 최초 청년전담팀 신설
도내 최초 청년기본조례 제정
3월까지 연구용역과 계획안 수립

전국 군단위 최초로 청년전담팀을 신설하고 도내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농복합도시 완주군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완주 청년 JUMP 프로젝트'가 새해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완주군은 청년 JUMP를 도약시킨 'JUMP-UP(점프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 점프업 프로젝트는 민선6기 진행한 점프 프로젝트의 성과를 청년정책 네트워크단등 참여 거버넌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지역의 청년협동조합 씨앗 중심의 연구 용역 등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확대,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오는 3월까지 연구용역과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해 4월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가동될 전망이다. 우선 완주군은 청년 셰어하우스를 7곳 21명 규모에서 8곳 31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삼봉웰빙시티와 삼례읍, 고산면 등에 800여세대의 행복주택도 조성될 계획이다

청년 거점공간도 지역별 거점형태로 3개소에 3000여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 창업공동체와 동아리를 양성하고, 청년인턴 지원을 위해 청년 채용업체에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들의 복합공간 '청년 내 일자리센터'를 조성 운영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와 창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커뮤니티가 가능

하도록 한다. 복합공간은 오는 2021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완주군의 사업에 청년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 기존 청년 축제참여 10%할당제와 함께 실과 읍면별 위원회 등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2017년부터 매년 2억원의 예산을 배정, 청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발굴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시행에도 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단지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 복지, 문화, 교육 등 통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정책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행복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땅 완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투자유치 전력

자동차 부품 기업 방문 투자유치 협의

김제시 전대식 부시장은 17일 수도권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기업을 방문하여 지평선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에서 전 부시장은 지평선 산업단지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최적의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번 투자유치를 위해 방문한 기업은 자동차부품 생산 업체로 연매

출 4,000억원을 육박하여 자동차업계 최정수에서도 꾸준한 매출 성장과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대규모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시장이 직접 나서서 투자여건을 홍보하고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는 회사현황을 소개하고 사업장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반응으로 지평선산업단지에 높은 관심을 보

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시에서는 지속적인 일자리 재난 상황에서 기업 유치가 곧 고용창출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대식 부시장은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기적인 연결 관계인만큼 장기적인 전락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도유망한 기업이 김제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퍼포즈축제 전경 사진

'완주 퍼포즈축제' 아이디어 공모

완주군, 축제·관광 명소화 전반... 25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완주퍼포즈축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17일 완주군에 따르면 공모주제는 완주군 퍼포즈축제 및 퍼포즈 관광 명소화를 위한 전반이며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

세부적으로 △퍼포즈를 테마로 한 공연, 전시·체험 아이디어 △지역자원을 연계한 축제사 진흥보성 행사 △완주군 남부권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코스 상품 개발 △퍼포즈 굿즈 및 관광기념품 개발 △퍼포즈를 테마로 한 프리마켓 운영 방안 제안 등이다.

완주군은 접수된 아이디어를 창의성, 실현가능성, 대중성, 활용

범위 등 항목별로 1차 심의를 진행해 이후 선발된 제안서를 외부 전문가의 2차 심의를 거쳐 채택할 계획이다.

제안 선정자는 1월말 완주군 홈페이지 및 퍼포즈축제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되며 완주군수상과 시상금(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을 수여한다. 단 응모 작품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당선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응모방법은 완주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되며, 완주퍼포즈축제 공식 페이스북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완주군 관광체육과(063-290-2622)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어린이집 원장들과 소통 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대화형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여성가족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현희 원장은 "재작년에 이어 2018년도도 급격한 출산률 저하

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인상 문제 등 여러 사회 약조건으로 보육환경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김제시의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 성원과 담당공무원들의 지도와 격려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준배 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보육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원장님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작물 절도예방 CCTV 설치 지원...2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

완주군이 농작물 절도예방 CCTV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완주군은 CCTV 설치로 농작물 절도를 예방해 군민들이 농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해 총 40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희망 농가는 2월 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2월중 대상자를 선정해 6월 이내에 사업을 마

무리 할 방침이다. CCTV 설치는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 절도위험이 높은 지역 또는 축사, 농경지 규모가 크고 많은 지역이 우선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작물 절도예방 CCTV 설치를 통해 농민들의 소중한 결실인 농작물의 절도를 예방해 안심하고 농경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